

쓰시마 박물관

이즈하라에 있는 쓰시마 박물관은 조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쓰시마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특히 쓰시마와 아시아 대륙의 교류 과정 및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고대의 교역, 분쟁과 화해, 에도 시대(1603~1867)의 한일 외교 등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상설전은 17세기 말의 쓰시마 지도를 중심으로 한 간결한 도입부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고대' 전시실이 있습니다. 독특한 전시 케이스를 통해 토기 파편, 화살촉, 도끼, 장식용 유리구슬 등의 유물들을 사방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세기 제사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청동 '미늘창' 등 실제로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복제품도 있습니다.

'중세'와 '근세' 전시 공간에서는 14세기부터 1867년까지의 유물들과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쓰시마의 무역상이 입수한 조선 도자기, 쓰시마의 상업 관계를 기록한 문서, 쓰시마의 다이묘였던 소가문이 위조한 공식 인장과 서한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위조품은 1600년대 초, 도쿠가와 막부와 조선 왕조 사이의 통상 및 외교 관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물관 건물 2층에는 나가사키현 쓰시마 역사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기록광'으로 알려진 소가문이 기록한 공문서의 보존, 복원,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 전반에 걸친 약 8만 점의 자료 중에는 번의 서기들이 쓰시마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일기처럼 기록한 『매일기(每日記)』도 포함되어 있어 쓰시마의 수 세기에 걸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